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Fitch, 미국 생명보험사 변액연금보험 리스크 증가 평가

- 신용평가사 Fitch는 금융위기로 2008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함에 따라 생보사의 주력 판매 상품인 변액연금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, 향후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생보사의 사활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함.
 - 최근의 유례없는 미국 주식시장의 악화로 미국 생보사는 그동안 주력해왔던 변액연금 판매로 인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당기순이익의 감소와 위험자본준비금(RBC)수준 상승이라는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.
- Fitch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판매된 실적을 볼 때 생보사 산업 전체는 변액연금 판매와 관련해서 위험자본준비금을 최소한 150억 달러 이상 상승시켜야 할 것이며 변액연금보험 순이익 역시 ①순자산 가치 감소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, ②헤징비용 증가, ③수익보장 관련 준비금 증가 및 ④2008년 하반기 신계약비 이연상각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.
- 생보사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예상하여 납입원금 보장과 같은 각종 옵션을* 제공하였으나,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이들 옵션의 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변액연금 순자산 가치는 더욱 감소하고 더불어 순이익의 감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임.
 - *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음.
- 한편 Fitch는 미국 생보사들은 헷징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생보사들의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고함.
 - 헷징프로그램은 최근과 같은 극심한 주식시장의 악화와 변동성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는 검증된 바가 없으며,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실적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음.
 - 파생상품 매수 비용도 변동성이 큰 최근의 환경 하에서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.
- 변액연금 판매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~3년간 높은 판매 실적을 향유해 온

대형사들은 이익의 감소와 준비금의 증가를 예상할 때 현재의 시점이 그들의 총력을 변액연금 판매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,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사는 변액연금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.

(www.fitchratings.com 10/22,
insurance news net 10/23)